

■ 檢, 박지원 체포영장 청구... 향후 절차는

국회 가결땐 48시간내 영장 가능

민주 상정 반대... 실제 처리 여부 미지수

검찰이 민주통합당 박지원(70) 원내대표에 대해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박 원내대표의 신병 확보 여부는 국회의원의 회기 중 체포동의 요청 절차에 따라 다음 달 2일

결정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현행법이 아닌 한 국회의원은 회기 중 체포·구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불체포 특권'에 따라 검찰이 박 원내대표의 신병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검찰이 지난 6일 솔로몬저축은행 임석(50) 회장으로부러 1억3천만원 을 받은 혐의 등으로 새누리당 정두 안(55)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와 같은 상황이다.

법원은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을 발부하기에 앞서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체포영장을 받은 서울중앙지법이 이르면 이날 업무 마감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수사팀에 보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로 넘어온 체포동의 요구서는 늦어도 31일 소관부서인 법무부로 전달돼 장관 서명을 받고, 이어 국무총리실에서 총리 결재를 거쳐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내지게 된다.

대통령 재가가 떨어지면 법무부는 다시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아 당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이 8월1일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면 이때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을 해야 한다.

8월3일에 임시회가 끝나는 점을 감안하면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일정상 2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실제 처리 여부는 미지수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

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부가 결정된다.

만약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박 원내대표에 대한 직접 조사가 가능해진다면 검찰은 체포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곧바로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검찰이 다시 국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 대법원 '인신구속사부의 처리에 관한 예규' 8조에 따르면 '체포동의요구를 해 그 동의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후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요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검찰이 박 원내대표를 풀어준 후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추가로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아 법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일단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표결에 붙어진다면 가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며 문제는 검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을 경우, 법원의 수용 여부"라며 "박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는 대선 정국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연합뉴스



무슨 얘기 나누까

대화를 나누고 있다.

검찰이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박(왼쪽)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대표와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구속상태에서 수사하겠다는 검찰에 단단히 나가 입장을 밝히는 게 정도이지 동료 의원에게 부담을 주고 국회를 경색하면 사태 이끄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검찰이 이날 중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검찰 공작에 응하지 않겠다"며 "기소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으려면 유무죄가 가려질 텐데 기소는 안 하면 서 언론플레이만 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방탄국회라고 지칭되는 국회를 열어 검찰 수사를 방해

“박지원 결백해도 검찰 조사 응해야” 민주당 황주홍 의원

민주통합당 황주홍(장흥·강진·영암) 의원은 30일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은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해 “검찰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사실상의 ‘당론’과 ‘당 방침’으로 우리의 원내대표를 기를 쓰며 무리하게 에워싸고 있겠다는 모습은, 소수의 열렬한 어떤 서 언론플레이만 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남 관광 살길은 지오투어리즘”

(Geotourism)

갯벌·공룡화석지 활용 지역 문화 연계

전남발전연구원 김중일 위원 주장

전남지역의 다도해와 서남해안 갯벌, 공룡화석지 등 지형·지질 자원을 활용한 신개념 관광 프로그램인 ‘지오투어리즘(Geotourism)’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남발전연구원 김중일 선임연구원은 30일 ‘관광과 지역 활성화의 새로운 대안, 지오투어리즘’이란 보고서에서 지형·지질 자원의 보전, 관광자원 활성화의 방안으로 지오투어리즘 추진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지오투어리즘이란 지형·지질 등을 중심으로 한 여행과 해당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등을 연계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관광 유형을 말한다.

보고서는 지오투어리즘 선진국인 유럽, 일본, 중국, 미국 등의 사례 분석을 통해 “이들 국가들은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체험을 줘 더 많은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있다”며 친체한 이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오투어리즘이 지형·지질 자원에 대한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인식을 높여 자원 보존은 물론 서비스·고용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 스스로 지질자원의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해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불거

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참여와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도 ‘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종합학술조사’를 진행하는 만큼 지형·지질 자원의 가치창출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대상자원의 발굴과 탐방 프로그램 개발, 담당부서 신설, 조례 제정, 탐방지원시설 확충, 전문가이드 양성, 국제 관광객 유치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지오투어리즘은 관광객, 관광자원,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추진협의기구를 먼저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새누리 광주시당위원장 우수택씨

전북도당위원장 정운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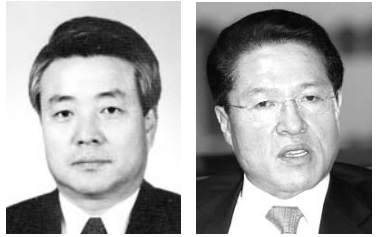
새누리당은 30일 공석인 광주시당 위원장에 우수택 전 조선훈 이사장을 선임했다.

신임 유 위원장은 영암 출신으로 광주고와 동국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전북 고창군수, 내무부 기획과장, 순천시장, 광주시 행정부시장, 전남 개발공사 사장, 조선훈 법인 이사장

등을 지냈다. 현재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부위원장과 아천 미술관 이사장을 맡고 있다.

유 위원장은 “광주시당 조직과 당원의 화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연말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또 이날 전북도당위원장 정운천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정 신임 도당위원장은 농



우수택 위원장 정운천 위원장

림수산식품부장관과 한나라당 호남 발전특별위원장을 지냈다.

정 위원장은 “지역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전북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권익기자 cki@kwangju.co.kr

“김영환 수갑 찬 채 한달간 의자서 재워”

하태경 의원 밝혀... 하금열 실장 “정부, 모든 조치 다할 것”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30일 중국 공안당국의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 조사와 관련해 “(공안당국이) 한 달 동안 의자에서 수갑을 찬 채 지게 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에 출연, 김씨에게 직접 들은 얘기라고 전하면서 “(공안당국은) 수갑을 채우고 의자에 앉힌 채 김씨를 조사했고, 잠을 잘 때도 놓지 못하도록 수갑을 채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조사받는 한 달 중 6일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고강도의 심각한 고문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총 114일 구금됐는데 초기 단통국가안전청에서 한달간 조사를 받을 때 고문을 받았다”며 “전 기봉에 의한 고문 같은 경우는 초기 목베린 행사할 때 집중적으로 가해졌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84일 정도는 구치소로 넘어가서 생활했는데 이렇게 길게 잡아 이유도 없었다. 조사도 안했다”면서 “고문 상처가 다 아물 때까지 중국 정부가 기다린 것 아니냐는 의혹

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는 “심각한 전기고문까지 당한 경우는 외국인 상대로는 아직 (유사) 사례를 못 찾고 있다. 강도가 좀 세다”며 “확실히 손을 좀 보라는 북한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하금열 대통령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 “고문이 있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정부나 청와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새누리 ‘박 체포동의안’ 표단속 주력

이해찬 “검찰 공작에 응하지 않겠다”

새누리당은 30일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표 단속에 주력했다.

검찰이 이날 체포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박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은 31일 오전 국회로 넘어올 것으로 예상되며 현행 국회법에 따라 다음달 1일 본회의의 보고, 다음달 2일 본회의 표결 일정이 유력하다.

내부적으로 체포동의안 가결 방침을 세운 새누리당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표결이 불발되거나 이탈표

가 발생해 부결되는 일이 없도록 소속 의원들의 표를 단속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 원내지도부는 현재 해외출장 중인 의원들의 조기 귀국을 종용하는 동시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 시 반대·기권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득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방탄국회라고 지칭되는 국회를 열어 검찰 수사를 방해

Advertisement for Dawa Auction (다와옥션) featuring real estate listings, contact information, and a website URL (www.dawauction.co.kr).

Advertisement for Gold Public Auction (금당 공인중개사) listing various properties for sale, including land, houses, and commercial buildings.

Advertisement for Real Estate Exchange (매매교환 전문) offering services for buying and selling buildings, hotels, and land.

Advertisement for Real Estate Agency (최기철 공인중개사 사무소) listing various real estate services and contact details.

Advertisement for Real Estate Agency (랜드피아 공인중개사) listing various real estate services and contact details.

Advertisement for Real Estate Agency (대인동삼일부동산) listing various real estate services and contact details.